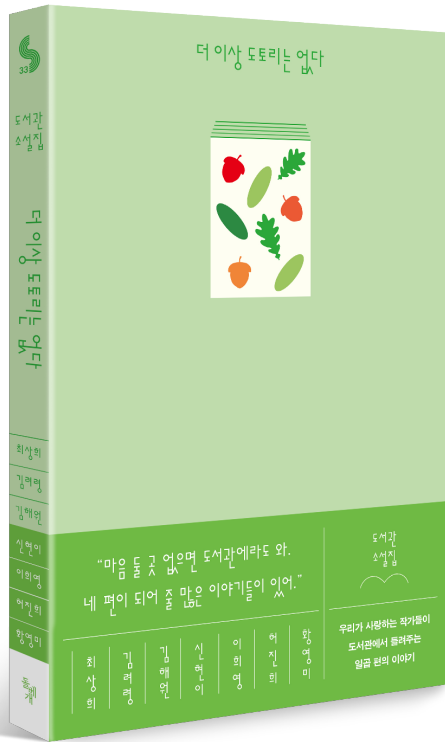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수업 지도안

교사용



## 더 이상 도토리는 없다

### 도서관 소설집

키워드

#청소년 #성장 #친구 #우정 #가족 #학교생활 #도서관 #책

작성자 : 위례고등학교 교사 최은영

학년 : 고등학생

단계	차시	활동 내용
읽기 전	1	<b>생각 열기</b> - ‘도서관’: 마인드맵 활동 - 차례를 활용한 활동(작품 선정하기, 제목 보고 내용 예측하기)
	2	「더 이상 도토리는 없다」, 최상희
읽기 중	3	「우리가 아주 예뻐할 때」, 김려령
	4	「황해황해」, 김해원
	5	「덜컹거리는 존재」, 신현이
	6	「책내기」, 이희영
	7	「유령이 머무는 숲」, 허진희
	8	「한밤에 만난 두 사람」, 황영미
읽기 후	9	작품 감상하기
	10	주제 토론하기

한국 청소년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소설집 『더 이상 도토리는 없다』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무대로 10대 주인공이 등장해 우정을 나누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일곱 편의 이야기를 담았다. 해당 독서 지도안은 중학교 수준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지도안이다. 독서 수업을 ‘읽기 전-읽기 중-읽기 후’ 단계로 구분하여 학생들이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 후 주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먼저 [읽기 전] 단계에서는 ‘생각 열기’ 활동을 통해 작품의 공통 소재인 ‘도서관’이라는 단어를 통한 마인드맵 활동과 책의 차례를 활용하여 제목을 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고르고, 제목을 통해 내용을 예측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다음으로 [읽기 중] 단계에서는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 만들고 답하기, 등장인물 파악하기, 제목의 의미 파악하기, 작품의 뒷이야기 상상하기, 갈등 파악하기, 줄거리 파악하기, 사건 파악하기’ 등 작품의 내용 이해를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작품 속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 사건의 전개, 배경 등에 대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읽기 후] 단계에서는 작품 전체의 내용에 대한 감상 활동 후 모둠별 주제 토론하기 활동을 진행한다. 주제 토론은 같은 작품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모둠별로 다른 작품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고, 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서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 | 1차시 |

1. 「더 이상 도토리는 없다」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무대로 10대 주인공이 등장해 우정을 나누고, 따뜻한 위로를 얻는 일곱 편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나에게 ‘도서관’은 어떤 공간인가? ‘도서관’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써 보자.



도서관

2. 책의 차례를 보고 일곱 편의 작품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고르고 그 이유를 써 보자.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은?	
그 이유는?	
책의 내용을 예측해 본다면?	

## | 2차시 | 최상희, 「더 이상 도토리는 없다」

1. 「더 이상 도토리는 없다」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을 해 보자. 그리고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답을 해 보자.

1) 도서관 다람쥐의 의미는?

답) 도서관에서 책을 몰래 숨겨 놓는 사람

2) 도서관 다람쥐가 숨겨 놓은 책을 부르는 말은?

답) 도토리

3) 도토리는 매주 ( )요일 오후에 발견되었고, 늘 ( )권이였다.

답) 도토리는 매주 ( 금 )요일 오후에 발견되었고, 늘 ( 세 )권이였다.

4) 첫 번째 도토리는 두 권은 ( ), 한 권은 ( )이다.

답) 첫 번째 도토리는 두 권은 ( 동화 ), 한 권은 ( 소설 )이다.

5) 두 번째 도토리들의 주인공은 모두 ( )이다.

답) 두 번째 도토리들의 주인공은 모두 ( 여자 )이다.

6) 세 번째 도토리들의 공통점은?

답) 매우 유명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

7) 질문 :

답)

8) 질문 :

답)

2. 다음은 작품 속 등장인물 ‘차미’의 말이다. 생략된 부분에 들어갈 도서관 다람쥐의 정체를 밝히고, 도서관 다람쥐가 도토리를 숨긴 이유에 대해 써 보자

“도서관 다람쥐는 당연히 도서관에 빈번히 드나드는 사람이야. 우리보다 더 도서관에 오래 있는 사람은 사서 선생님 말고는 없어. 선생님은 예외로 했지. 그럴 이유나 동기가 희박했으니까. 이상한 점은 도토리를 발견하는 건 언제나 우리 셋이라는 거였지. 다람쥐는 반드시 우리가 도토리를 발견할 줄 알았던 거야. 이런 정황들로 미루어 내린 결론은, 믿기지 않았지만…….”

도서관 다람쥐는 (            )이다.

도토리를 숨긴 이유는

이다.

(예시)

도서관 다람쥐는 ( **녹주** )이다.

도토리를 숨긴 이유는 **좋아하는 책을 같이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책을 권하고 싶어서**

이다.

3. 내가 만약 ‘도서관 다람쥐’라면 어떤 책을 숨기고 싶은지 써 보고 그 이유도 적어 보자.

숨기고 싶은 책	
그 이유는?	

## | 3차시 | 김려령, 「우리가 아주 예뻐했을 때」

## 1. 작품의 내용을 참고하여 등장인물을 소개해 보자.

인물	소개 내용(성별, 하는 일, 성격 등)
옹(서화선)	
서정원	
정솔	

(예시)

인물	소개 내용(성별, 하는 일, 성격 등)
옹(서화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청에서 인정한 유기장 보유자</li> <li>○ 서정원의 할아버지</li> <li>○ 정원과 술이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방짜 유기로 소꿉 살림을 만들어 줌.</li> </ul>
서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화선 옹의 손자, 고등학생, 남자</li> <li>○ '정솔'의 어린 시절 동네 친구</li> <li>○ 중2 때 '정솔'을 괴롭히는 '송아림'을 찾아가 더 이상 나쁜 행동을 못 하도록 단속함.</li> <li>○ '정솔'에게 사귀자고 함.</li> </ul>
정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생, 여자</li> <li>○ 태어날 때부터 '서정원'과 신랑과 각시로 불림.</li> <li>○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신랑과 각시라고 불리는 아이들 때문에 '서정원'과 거리를 둠.</li> <li>○ '서정원'을 좋아했던 '송아림'의 괴롭힘 때문에 갈등함.</li> </ul>

2. 정원과 솔이의 이야기에서 작품의 제목인 ‘우리가 아주 예뻐했을 때’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나의 인생에서 ‘내가 아주 예뻐했을 때’는 언제인지 이야기해 보자.

작품의 제목인 ‘우리가 아주 예뻐했을 때’의 의미는?

---

---

---

---

---

나의 인생에서 ‘내가 아주 예뻐했을 때’는?

---

---

---

---

---

3. 작품 속 ‘정원’과 ‘솔’이는 태어날 때부터 신랑과 각시였다. 전시회에서 다시 만난 정원과 솔이는 할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방짜 반지를 나눠 가진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소설의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써 보자.

---

---

---

---

---

---

---

---

---

---

4. ‘방짜 유기’에 대한 다음의 글을 읽고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자.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놋쇠에 열을 가하여 녹여 망치로 두들기고 찬물에 담금질하여 유기를 제작하는 방법.

이러한 방짜의 장점은 최근 들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작게는 밥을 담아 놓으면 잘 식지 않는다거나, 방짜 그릇에 물과 함께 미나리를 담가 놓으면 거머리가 방짜 그릇에 달라붙어 미나리를 깨끗이 씻을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또 농산물을 재배할 때 무분별하게 사용된 농약도 방짜가 죽집게처럼 검출한다. 농약 성분이 덜 세척된 재료를 사용한 음식물을 방짜 그릇에 담을 경우 자국이 생기는 것. 당연히 독극물을 가려내는 효과도 있다. 사극에서 왕의 수라상에 올라가는 음식물을 놋수저로 독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장면은 방짜의 이같은 효과에서 기인한다.

이외에도 방짜는 몇 해 전 방송실험에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O157’균을 박멸하는 능력도 보여준 바 있다. 스테인리스 용기와 사기 그릇, 방짜 그릇에 일정량의 균을 증류수에 섞어 넣은 후 16시간 후에 세 그릇에서 추출한 물을 배양했더니 다른 그릇들과 달리 방짜 그릇에서는 단 한 마리의 균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 이와 관련 경원대의 박종현 교수는 방짜 그릇은 항균이 아니라 살균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주석은 자체로 상당한 살균 효과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 O157균이 박멸된 것은 바로 청동에 들어 있는 주석 성분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기 그릇, 스테인리스 그릇, 방짜 등 3개 용기를 대상으로 한 미네랄 성분 검사에서도 방짜는 특이점을 보였다. 방짜에서만 나트륨·구리·아연 성분이 소량 검출된 것이다. 미네랄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물질로 우리 몸 안에서는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 조상이 놋그릇을 통해 미네랄을 자연적으로 섭취했음을 짐작케 한다.

— [네이버 지식백과] 신비한 청동기술이 녹아 있는 방짜 (KISTI의 과학향기 칼럼)

(예시)

방짜 유기에 농약 검출, 살균 효과, 미네랄 섭취 등 많은 장점이 있어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지만, 방짜 유기가 실생활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요즘은 사용의 편리함 때문에 스테인리스 그릇, 플라스틱 그릇 등이 많이 쓰이는데, 많은 장점을 가진 방짜 유기를 보존하기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



| 4차시 | 김해원, 「황혜홀혜」

1. 작품 속 미래의 도서관은 종이책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가 만약 보존할 책을 선별한다면 어떤 책을 보존하고 싶은지 써 보고 그 이유도 적어 보자.

“전에 어디서 보니까 국립중앙도서관 보존 서고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종자 보관소 같던데, 하기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책이 종자인 셈이죠. 그래서 보존할 책을 굉장히 엄격하게 선별한다던데요?”

보존하고 싶은 책 (책 제목 : 작가)	
그 이유는?	

2. 다음 소설의 내용을 통해 ‘황혜홀혜’ 도서관에 책을 맡긴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 나는 책등에 ‘3605’라는 숫자가 붙은 책을 꺼냈다.
- “2036년 5월에 죽은 거야.”
- “그 책을 갖고 있었거나, 그 책을 좋아했거나 그런 사람이겠지.”
- “숫자가 책 주인이 죽은 날짜라는 거야?”
- 내 손에 들려 있는 책은 도대체 누구의 과거인 건가?
- “나는 책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이 문장으로 남는 거잖아.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 문장으로, 낱말로 남는 거잖아. 글을 읽으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잖아. 오래오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



---



---



---

3. 다음 내용을 통해 작품 속 미래 사회의 모습과 기사에 제시된 현재 사회의 모습에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 “내가 살던 동네에서는 비를 쳐 온다고 해. 비만 오면 동네가 초토화되니까. 비가 적군인 거야. 사람들도 꽤 죽었으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할머니는 차에 나를 태우고 여기로 왔어.”
- “여기 재개발되는 거야?” / “고지대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사 버렸지. 여기 살던 임대인들은 전부 쫓겨났어. 돈 없는 사람들은 아래로 아래로 자꾸 내려가는 거지. 비가 쳐 와도 피할 수 없는 곳으로. 옛날에는 돈 없는 사람들이 산꼭대기 살았다는데.”
- “36년 홍수 때 세상을 떠났어. 이강물 씨가 살던 도시도 물에 잠겼고,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 평일 대낮이었으니까, 일하느라고 홍수 경보를 못 들은 사람이 많았어. 지금은 경보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그때는 안 그랬으니까.”

지난 8월 수도권에 쏟아졌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14명이 숨지고, 2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당시 폭우로 반지하 주택을 비롯한 저층 건물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신고된 침수 차량도 1만여 대에 달하며, 피해액은 1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달에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불어닥치며 남부지방이 극심한 타격을 입었다. 강풍과 폭우로 강물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일어나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 ○○뉴스, 2022.09.14.

문제점:

-----

-----

해결 방안:

-----

-----

-----

(예시)

- 문제점: 홍수나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침수, 부상, 사망 등의 피해가 더 크다.
- 해결 방안: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 폭우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노후화된 배수 관로를 개선하거나 지하나 반지하에 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주거안전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불필요한 조명을 끄고, 쓰지 않는 전자제품의 전원을 끄는 등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필요한 양만큼의 음식을 소비하며 버려지는 음식을 줄이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법이 될 수 있다.

15차시 | 신현이, 「덜컹거리는 존재」

1.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관계도를 그려보고, 인물의 특성이나 행동, 상황을 적어 보자.

나(제우)

j

장은하

승준, 태희

(예시)

나(제우)

- '장은하'를 보면 기분이 좋아짐.
- 'j'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눈치를 봄.

↔  
갈등

j

- '장은하'에게 관심이 있음.
- '나'와 '장은하' 사이를 견제함.
- '나'를 동화에 나오는 멍청한 거인이라고 놀림.

↕ 친구

↙ 관심

| 친구

장은하

- '나'에게 수학 문제를 물어봄.
- '나'가 코인 노래방에 가지 않은 것을 궁금해함.

승준, 태희

- '나', 'j'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
- '나'가 코인 노래방에 가지 않았을 때, 붙잡지 않음.

2. 다음을 통해 '나(제우)'의 심정을 파악해 보고, 위로하는 말을 써 보자.

- 승준과 태희와 j가 함께 어울리고 나만 혼자 남게 되면 어떻게 하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j의 눈치를 봐야 하고 늘 신경 써야 한다면 어떻게 하지?  
어느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어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친구 사이라고 할 수 없었다.
- 돌아보지 않아도 j가 나를 쳐다보며 웃고 있는 게 시야에 잡혔다. 비웃음이었다. 나는 괴로웠다. 창피하더라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겁을 먹었다. 그래서 괴로웠다. 몸은 거인같이 큰데 마음이 콩알만 하게 좋아들어 가고 있는 것이었다.

제우야!

---



---



---

3. 다음은 작품의 결말 부분을 읽어 보고 '나'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그리고 자신이 작품 속 주인공과 비슷한 갈등 경험 있는지 떠올려 보고, 나라면 어떻게 친구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지 이야기해 보자.

나는 눈을 꼭 감고 최초의 불을 떠올렸다. 확, 감고 있는 눈 앞에서 최초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후들, 몸이 떨렸다. 그때 어떤 힘이 나를 떠밀었다.  
 가서 말을 걸어.  
 엄마 말이 떠올랐다.  
 나는 자전거를 끌며 j를 향해 걸었다.  
 “야, j, 너 여긴 어떤 일이니?”  
 큰 소리로 말했다.

작품 속 '나'의 갈등 해결 방법:

---



---



---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나의 해결 방법:

---



---



---

## | 6차시 | 이희영, 「책내기」

## 1. 작품 속 두 이야기의 줄거리를 파악해 보자.

구성	줄거리
1. 풋뚝의 이야기	
2. 강한결의 이야기	

(예시)

구성	줄거리
1. 풋뚝의 이야기	서가를 관리하는 책내기 풋뚝이는 자신이 관리하는 책이 늘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책지기 바치 님이 풋뚝이를 제목도 분류 번호도 없이 한 권으로 엮이지 못한 낱장의 종이 다발이 쌓여 있는 다른 서가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풋뚝이는 바치 님과의 대화를 통해 매일매일 적어 내려가는 똑같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된다.
2. 강한결의 이야기	강한결은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한가온과 사귀게 되었으나, 사랑에 대한 속도와 온도가 달라서 결국 한가온과 이별하고 군대를 다녀온다. 우연히 '파르팔레'라는 파스타 가게에 들어갔다가 고등학교 동창인 최다솜을 만나고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

2. 작품의 내용을 참고하여 등장인물을 소개해 보자.

	인물	소개 내용(하는 일, 성격 등)
이야기1	뜻똘	
	바치 님	
이야기2	강한결	
	한가온	
	최다솜	

(예시)

	인물	소개 내용(하는 일, 성격 등)
이야기1	뜻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내기</li> <li>○서가를 청소하고 책을 관리함.</li> <li>○‘바치 님’처럼 멋진 책지기가 되고 싶어 함.</li> </ul>
	바치 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지기</li> <li>○진실한 이야기가 담긴 게 책이라고 생각함.</li> <li>○‘뜻똘’이 훌륭한 책지기가 될 수 있도록 조언함.</li> </ul>
이야기2	강한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가온’과 사귀다가 헤어진 후 군대를 다녀옴.</li> <li>○파스타 가게인 ‘파르팔레’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최다솜’을 만나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게 됨.</li> </ul>
	한가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진 본능에 충실함.</li> <li>○‘강한결’에게 먼저 사귀자고 하고, 먼저 관계를 끝냄.</li> </ul>
	최다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한결’의 고등학교 동창.</li> <li>○활기찬 성격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강력한 리더 반장이었으며, 파스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함.</li> </ul>

3. 다음 작품 속 감각적인 표현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표현을 골라 보자.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지 이야기 해 보고, 마음에 드는 이유를 적어 보자.

- 눈앞에 새하얀 미소가 목련처럼 피어났다. (131쪽)
- 뿔뿔의 가슴 속에서 작은 나비가 파닥거렸다. 기분 좋은 떨림이 온몸으로 퍼져 나갔다. (133쪽)
- 비강 가득 기묘한 책 냄새가 느껴졌다. 복숭아처럼 달콤한 향기는 풋감처럼 떼게 변하더니 맑은 녹차처럼 쌉싸름하고 진하게 풍겨 왔다. (133쪽)
- 묶이지 못한 종이들이 차츰차츰 울었다. (135쪽)
- 그 안에 얽전히 잠들어 있는 종이들은,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성난 참새 떼처럼 푸드덕 날아오를 것만 같았다. (137쪽)

마음에 드는 표현:

---

---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

---

---

---

마음에 드는 이유 :

---

---

---

(예시)

- 마음에 드는 표현: 눈앞에 새하얀 미소가 목련처럼 피어났다. (131쪽)
-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  
: 밝고 환한 미소를 ‘새하얀’이라는 시각적 표현과 크고 흰 꽃인 목련이 피는 것에 비유했다.
- 마음에 드는 이유  
: 환한 미소를 흰색으로 표현하여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과 미소를 꽃이 피는 것에 빗대어 ‘미소가 피어났다.’라고 표현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

4. 「책내기」의 작가는 인간의 삶은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매우 흡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책이 꽃혀 있는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말했다.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오늘 나의 하루 이야기를 기록해 보자.

“아니, 그 책의 주인공에게는 하루하루가 도전이었다. 늘 같은 시간에 아침을 열고, 매일을 하루같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니?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삶을 기록해 나가기란 절대 쉽지 않아. 너는 비로소 그 책에 덧붙여진 한 줄이 새롭겠지만, 주인공은 아주 오랫동안 그 한 줄을 준비해 왔다. 참으로 우직하고 진실한 기록이지.”

바치 님의 시선이 미완의 원고 사이를 유영했다.

“이곳의 책 대부분은 승고하다.”

“아닌 책도 있나요?”

“세상에 완벽은 없으니까.”

조금 더 책과 가까워진 기분이었다. 매일매일 적어 내려가는 똑같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비로소 알 것 같았다. 땀이 책을 가만히 품에 안았다.

### 오늘 나의 하루 이야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7차시 | 허진희, 「유령이 머무는 숲」

1. 다음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단어와 어구들이다. 단어와 어구들을 활용하여 도서관에서 일어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해 보자.

미안해요	작은 여자아이	엄마
찢긴 책	유령	
열세 권의 책	소리로 가득 찬 방	동일시

도서관에서 일어난 사건:

---

---

---

---

---

---

---

---

---

---

(예시)

도서관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열세 권의 책을 훼손했다. 유령인 '나'는 도서관에 방문한 여자아이를 찢긴 책들의 소리로 가득 찬 방으로 데려갔다. 방 안에서 여자아이는 울면서 '미안해요.'라고 사과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엄마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없다는 사실에 슬퍼하다가 자신만 두고 간 엄마를 미워하게 됐고, 엄마가 보물처럼 모았던 책을 떠나간 엄마와 동일시해서 책을 찢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2. 다음은 작품 속 등장인물이 생각하는 도서관 또는 책의 의미이다. 나에게 도서관 또는 책의 의미는 무엇이며, 나는 언제 도서관에 가는지 이야기해 보자.

- 책이 쌓인 자리의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아무리 봄과 가을이 짧다 해도 이곳에서만큼은 느긋하게 계절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좀처럼 시간의 흐름을 감상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도서관이라는 그럴듯한 공간을 만들어 낸 건 아무리 생각해도 기특한 일이다. 인간들, 그중 책을 읽는 인간들. 그들이 책을 고르고 책장을 넘기고 책에 몰입해서 내뿜는 에너지는…… 뭐랄까, 말하자면 내겐 피톤치드 같은 거다.
- 책을 도피처로 삼은 아이. 책과 자신을, 그리고 책과 떠나간 이를 동일시한 아이. 양지와 음지의 감정을 오로지 책에 쏟아부으며 버틴 아이. 그 아이의 눈동자에, 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처연한 감정이 어린다.

도서관/책은 나에게 ( )이다.

왜냐하면, ) 때문이다.

나는 ( ) 경우에 도서관에 간다.

그 이유는 ) 때문이다.

3. 엄마와 이별한 후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작은 여자아이에게 위로의 편지를 써 보자.

작은 여자아이에게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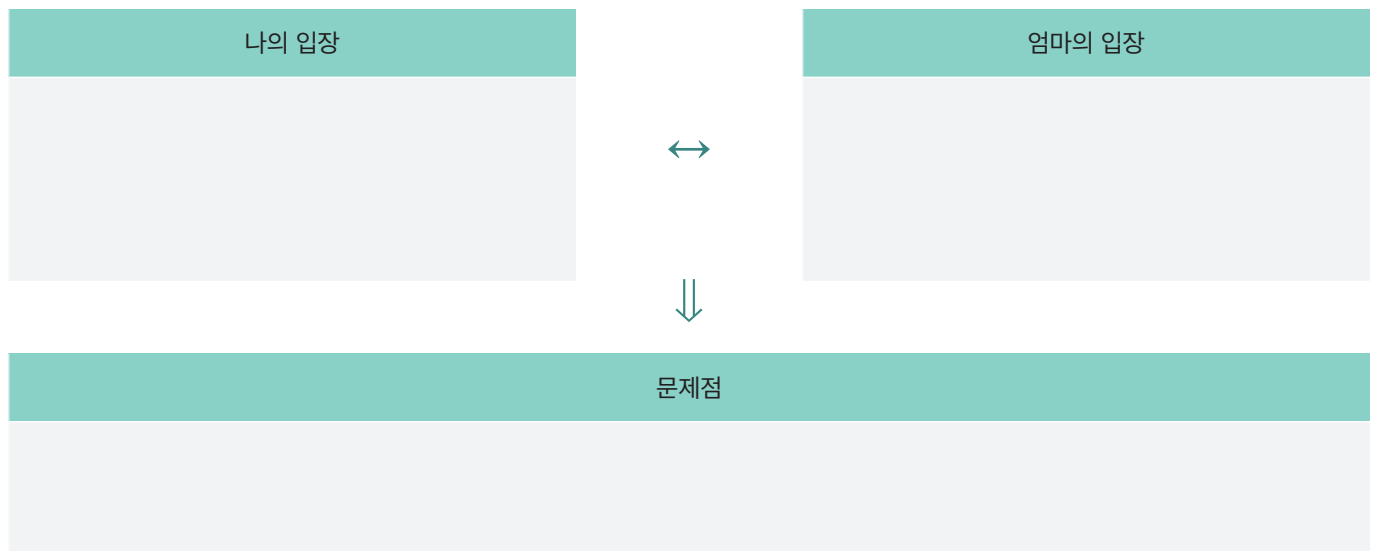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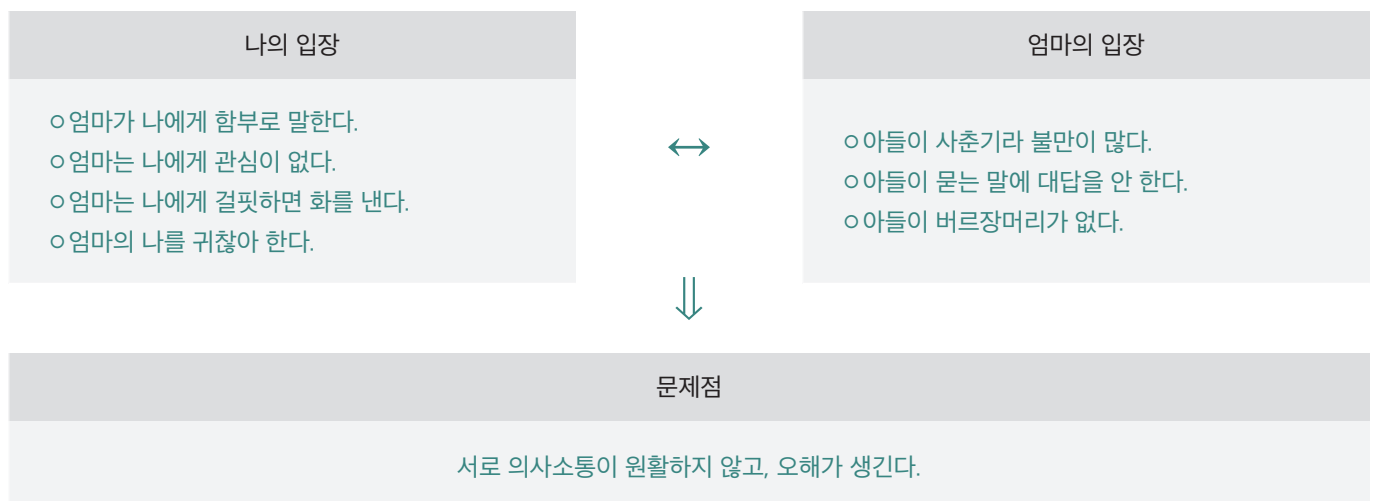
| 8차시 | 황영미, 「한밤에 만난 두 사람」

1. 작품 속 ‘나’와 ‘엄마’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자.

- 내가 사춘기 반항이나 하려고 아침밥도 안 처먹었다고? 저런 시나리오는 대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나오는 걸까? 엄마는 내 등교 시간을 모르는 건가? 하긴 모르겠지.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열어 놓은 창문 땀에 방문이 꽂 달힌 걸 왜 내 탓을 하지?
- “묻는 말에 대답 좀 해 줘. 너, 요즘 엄마 말 자주 씹는 거 알아? 네가 대답을 안 하니 엄마도 열 받잖아.”
- 웬일로 엄마가 이런 말을 다 하지? 이걸 사과인가? 변명인가? 그리고 보니 내가 엄마 말을 씹기는 했다. 뭐, 엄마가 걸핏하면 화를 내는데, 어느 타이밍에 대답을 하란 말인가? 어쨌든 나도 잘못된 점이 있었던 거 같다.



(예시)



2.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을 이야기해 보자.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이 있었던 나의 경험은?

---

---

---

---

---

---

---

---

---

---

불만이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은?

---

---

---

---

---

---

---

---

---

---

3. 다음을 읽고 도서관에서 ‘나’와 ‘아빠’가 만나는 장면(208쪽~216쪽)을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하고자 할 때 간단한 스토리보드(실제 촬영하기 쉽도록 대본의 주요 장면을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정리한 것)를 작성해 보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벽에 걸린 유치원 입학식 사진을 쳐다보았다. 아빠, 아빠다. 도서관에서 만났던 아저씨는 아빠였다. 오랜 투병으로 깡마른 모습만 기억했던 터라 건강했던 아빠 모습을 몰라봤다. 어쩐지 마음이 끌리더라니. 책을 읽던 꼬마는 나였단 말인가? 아마도 그럴겠지. 유치원 시절 나는 똥 얘기 나오는 동화책을 엄청 좋아했다. 이제야 기억나다니. 『똥으로 그린 그림』은 아빠가 어린이날 선물로 사 준 책이었다. 그 책은 거실 서랍장에 꽂혀 있다. 몇 번 이사를 다니면서도 엄마는 그 그림책만은 버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꿈이었나? 아닐 텐데. 내가 휴대폰도 없이 집을 나간 건 분명한 현실이다. 집에 와서 엄마랑 있었던 일도 현실이고. 도서관에서의 일이 꿈이라면 그 시간에 나는 어디에 있었던 거지?

장면번호	장면(그림 또는 설명)	소리/자막/음악/대사 등	촬영기법
S#1	○ ‘나’가 도서관에서 잠이 들고, 장면이 겹치면서 ‘나’의 꿈속 장면이 펼쳐짐.	○ 따뜻한 분위기의 음악	O.L.

## | 9차시 | 작품 감상

1. 이 책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보자.

2.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또는 기억에 남는 문장은? 그 이유는?

인상 깊었던 장면 또는 문장:

---

이유:

---



---

3. 이 작품에 대한 나만의 한 줄 감상평을 작성해 보자.

제 점수는요?	☆☆☆☆☆
한 줄 감상평	

4. 이 작품에 대한 나만의 감상을 적어 보자.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b>나만의 감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롭게 알게 된 것</li> <li>• 읽으며 갖게 된 생각과 감정</li> <li>• 현실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것</li> <li>• 책 내용과 관련된 자기 경험</li> </ul>	
---	--

## | 10차시 | 토론하기

## ♣ 작품별 토론주제 예시

작품	토론주제
「더 이상 도토리 는 없다」, 최상희	도서관에 의도를 가지고 책을 몰래 숨겨 놓았던 ‘도서관 다람쥐’의 행동은 적절하다/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아주 예뻐 있을 때」, 김려령	태어날 때부터 신랑과 각시로 정해진 정원과 술은 진정한 인연이다./인연이 아니다.
「황혜흠혜」, 김해원	도서관에서 값나갈 만한 책을 찾아 경매 사이트에 올리는 일을 한 ‘이수’와 ‘나’의 행동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일이다./불법이다.
「덜컹거리는 존재」, 신현이	‘어느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어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친구 사이라고 할 수 없었다(108쪽).’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책내기」, 이희영	— 이야기1.: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삶을 기록해 나가기란 절대 쉽지 않아(153쪽).’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 이야기2.: ‘두 사람이 동시에 사랑을 시작해도, 서로의 속도와 온도가 다르다(139쪽).’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유령이 머무는 숲」, 허진희	엄마를 잃은 슬픔을 잊기 위해 책을 훼손한 작은 여자아이의 행동은 처벌받아 마땅하다./위로가 필요하다.
「한밤에 만난 두 사람」, 황영미	— 엄마와 싸우고 가출한 ‘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이해할 수 없다.
	— ‘우리는 타인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면서 산다.(215쪽)’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 찬성과 반대로 토론이 가능한 주제

제목	글쓴이
[활동] 작품의 내용과 관련하여 모둠에서 선정한 토론 주제에 대해 토론해 보자.	
토론 주제 :	
< 찬성의 입장 : >	
<p>근거 1.</p> <p>근거 2.</p>	
< 반대의 입장 : >	
<p>근거 1.</p> <p>근거 2.</p>	



♣ 찬성과 반대로 토론이 불가능한 주제

제목		글쓴이	
----	--	-----	--

[활동] 작품의 내용과 관련하여 모둠에서 선정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주제 :

<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 >

나의 의견

그렇게 생각한 이유

< 주제에 대한 다른 모둠원의 생각 >

의견 1. ( )

의견 2. ( )

의견 3. ( )